

# 볼리비아, 천연가스 매장량 5배 확대

18억달러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 ... 상당량 브라질 · 아르헨티나 수출

볼리비아가 천연가스 매장량을 2020년까지 5배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.

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“천연가스 광구 개발에 주력해 2020년까지 확인 매장량을 50조m<sup>3</sup>로 늘려 내수와 수출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”이라고 12월20일 발표했다.

볼리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YPFB의 카를로스 비에가스 대표는 “천연가스 산업 육성을 위해 18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, 정부가 45%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YPFB는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브라스(Petrobras), 스페인-아르헨티나 합작기업인 랩솔(Repsol)-YPF, 프랑스 석유 메이저인 토탈(Total)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.

볼리비아는 1일 4500만m<sup>3</sup>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상당량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수출해 왔으나 2006년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 에너지 산업 국유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해 왔다.

투자 부족 때문에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도 2005년 12조8000억m<sup>3</sup>에서 9조9400억m<sup>3</sup>로 줄어들었다. <저작권자유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21>